

[GALLERY]빈틈 없는 세상

정형모 기자, 사진 두산갤러리 제공 | 제264호 | 20120401 입력

홍경택(44)의 화면은 터질 듯 팽팽하다. 일상의 사물은 강렬한 원색을 가득 품고 있다. 본래 재질이 갖고 있는 질량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의 특기다. 여백이 없는 그의 그림은 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 대한 은유다. 이번 전시에서는 높이 2m가 넘고 길이 8m에 달하는 대작 'Pens 3'을 선보인다. 글 정형모 기자, 사진 두산갤러리 제공

홍경택(44)의 화면은 터질 듯 팽팽하다. 일상의 사물은 강렬한 원색을 가득 품고 있다. 본래 재질이 갖고 있는 질량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의 특기다. 여백이 없는 그의 그림은 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 대한 은유다. 이번 전시에서는 높이 2m가 넘고 길이 8m에 달하는 대작 'Pens 3'을 선보인다.



홍경택의 'Pens3' 중 부분(2001-2010), oil on linen, 259x776cm

Print

Copyright by sunday.joins.com, Inc.